


**오늘의
게시판**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대회의실

행사
31일
 ▲광주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시범구간 개장식=오후 6시
 광주천 현장.

▲2006 무진주 문화마당=오후 6시 30분 광주시 서구 지하철 '상무역', '불의 향연'을 주제로 시, 음악, 무용 등 문화 공연. 604-8036

▲21세기 장성 아카데미=오후 4시30분~6시 장성군청 대회의실. 제 486회 '한국산업의 미래 발전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이 강사로 나서 강의. 061-390-7265

▲조선대 누리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위한 토론회 '문화 유산은 어떻게 문화콘텐츠가 되는가'=31일 오후3시 조선대 생활 401호 세미나실. 김영기·이윤선·김지원·류재한씨 등 주제발표와 토론.

▲팔마페 전국 게이트볼 대회=4월 1일까지 순

전대 운동장. 전국에서 200여명이 참가. 순천시 문화관광과 061-749-3254

〈4월1일〉
 ▲시민과 함께하는 신춘음악회=오후 7시 목포 문화예술회관. 시립합창단이 가곡 '남촌', 강 건너 봄이 오듯', 가요 모음 '꽃집의 아가씨', '최진사역 셋째 꽃', 시립교향악단이 '슬라브 행진곡' '개구리와 올챙이', '아빠 힘내세요', '헝가리안 무곡', '목포의 눈물' 등 연주. 061-270-8511

▲2006 진도 토요민속여행 개막공연=오후 2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 윤진철·허애선·박애리·동천사물놀이·군립민속예술단원 등 출연. 061-540-3536

▲제8회 구례 산수유 꽃 축제=4월 2일까지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온천관광지 일원. 풍년 기원제·산수유 꽃길 걷기 체험·산수유 꽃 사진 촬영 대회 등 개최. (061)780-2255

▲광주MBC '도전 엄지왕 신발대회'=오후 4시 광주MBC 방송국 공개홀. 휴대폰을 이용해 우리 지역의 화제와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퀴즈를 선택해 직접 푸는 대회로 TV녹화와 라디오 녹음 동시 진행. 방정문의) 360-2231

▲청평초고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오전 10시 보고 강당.

▲제20회 광주연극제 '결혼'=31일 오후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이강백 작·강용복 연출로 극단 '터'의 작품이다.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남자가 가진 것을 모두 털어 도박처럼 한 여자에게 칭찬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세정아울렛과 함께 떠나는 세계 민속여행 '러시아 댄스팀 보바 초청공연'=4월1일 오후4시 세정아울렛 1층 광장 상설무대. 프랑스의 강강, 스페인의 플라멩코, 미국의 카우보이댄스, 쿠바의 쿠

바나, 불가리아의 베터플라이 등 세계 각국의 민속춤 선사. 062-375-0069

▲남도의 빛 전=4월 4일까지 전시회장=동구 금남로 창 갤러리. 광주·전남 출신 중진작가 60명이 참가 한다. 서양화가 강연균씨를 비롯 김종일·노의웅·오건탁·우제길·최영훈·황영성, 한국화가 김형수·박은용·박행보씨 등이 참여한다.

▲난설 횡정숙 서전=다음달 5일까지 금남로 4가 지하철역 메트로 갤러리. 예서와 행정서는 물론 전서, 초서, 해서, 한글 등 서체 전 부문에 걸친 65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김대원씨 '사유의 부활'=4월 3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전통 한국화의 기법과 색채의 틀을 벗어나 강렬한 채색과 추상성이 강조된 작품 25점을 선보인다.

▲박성희씨 '우먼스토리'=4월 10일까지 광주시 북구 일곡갤러리. '시집 가는 날', '새벽-달지다', '점자' 등 최근작을 전시한다.

▲2006 영·호남 수목화전 '상소와 시가의 만남'=전=4월13일까지 옥과 미술관, 이상열·노태범·권기철·허진·이형우·이구용·이민한·이철량·이철규·유기준씨 등 참여



오는 4월 13일 개봉하는 최지우, 조한선 주연의 멜로영화 '연리지'.

검색정정 키워드

검색

'휴대폰 보조금' 네티즌들 관심 쏟려

색하면서 김씨 로비 의혹 사건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서울 '롯데월드' 사고 소식도 인터넷을 달궜다. 롯데월드측이 지난 6일 발생한 놀이기구 탑승자 추락사망 사고에 사죄하며 무료 개장행사를 시작한 지난 26일 10만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수십 명이 넘어져 부상하는 사고가 빚어졌다. 네티즌들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즉흥 상술'로 물의를 빚은 롯데 월드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안티 롯데월드' 카페도 등장했을 정도.

한국 프로야구 시범경기 대한 소식도 월드 월드가 많았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또 최지우와 조한선이 출연, 오는 4월 13일 개봉 예정인 영화 '연리지'도 인기 검색어 5위를 차지했다. 연리지는 한 나무의 가지와 다른 나무의 가지가 서로 붙어서 나뭇결이 하나로 이어진 것을 말

하는데, 영원한 사랑을 이루는 것을 상징한다. 최지우는 민수를 만나 생애 마지막 사랑을 하는 혜원역을, 조한선은 혜원을 만나 생애 첫 사랑을 하는 민수 역을 맡아 열연했다.

졸음·피로감·집중력 저하 등 봄의 불청객 춘곤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춘곤증 예방법 등도 관심을 끌었다.

이외 실제 연인 강혜정·조승우 커플이 호흡을 맞춘 영화 '도미뱀'도 화제의 검색어에 올랐고, 인기 아나운서 노현정씨의 교통사고 소식도 검색 빈도가 많았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주간 급상승 검색어

1위	휴대폰보조금	6위	충곤증
2위	김재우	7위	노현정교통신고
3위	롯데월드	8위	도미뱀
4위	프로야구시범경기	9위	굿바이슬로
5위	연리지	10위	4월

새 유행정석 본선 19국 제 2보(13~31)

白 조 한 승 (8단) 黑 이 상 흐 (8단)

〈티아점〉

두 대국자는 속기에 능해 KBS바둑왕전에서 준우승한 경력이 있다. 결승전 상대는 둘 다 이창호 9단이었는데 조한승 8단은 2대 0으로, 이상훈 8단은 2대 1로 패배했다. 두 기사는 모양이 좋고 행미에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해서 속기에 특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흑 13은 우상귀 화점을 의식한 협공이다. 18로 불린 수는 이창호 9단이 애용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대

정석이다. 예전에는 18로 19의 곳에 두거나 3·삼에 뛰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흑 25까지 막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창호 9단이 실리작전으로 대성공을 거두어 유행을 타게 됐다.

흑 29는 참고도의 백 1로 붙여 오는 것을 유도한 수다. 흑이 2로 붙여 오는 수가 묘수로 8에 이르면 백의 응수가 없다. 그래서 백도 30으로 비쳤는데 흑 31이 행마의 요령이자 맥점이다.

〈노규철 9단·본지 바둑해설위원〉

생활의 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바둑소식
박영훈 9단, 기성전 2연승

박영훈 9단이 29일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16기 기성전 도전 5번 기 제2국에서 안조영 9단에게 234수 만에 백불승을 거두고 2승을 쟁겼다.

지난해 최철현 9단을 맞아 제5국에서 반 접승으로 기성 타이틀을 따낸 박 9단은 나머지 대국에서 1승을 추가할 경우 기성전 2연패를 달성한다.

이날 최후의 승부처는 우변 패였다. 흑으로서는 최대한 버틸 수밖에 없었던 패싸움이었으나, 박 9단이 패를 해소하자 흑은 백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짐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안 9단이 결국 돌을 던졌다. 도전 3국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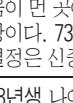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31일(음 3월 3일 己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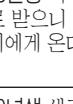


36년생 숨이 가쁜 하루로다. 48년생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성의껏 협조하라. 60년생 할 일은 분명하게 처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라. 72년생 오전은 흉하나 오후는 길하다. 84년생 옛 일로 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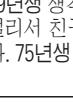
행운의 숫자 : 0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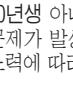
37년생 상황이 변하니 주의 깊게 살펴보라. 49년생 근처에서는 괴롭이가 있는 곳에서는 좋은 소식이 온다. 61년생 도움을 주면 담은 그 이성이. 73년생 천리 길도 차근차근 전진하라. 85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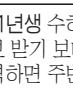
38년생 나이는 숫자로 뿐 용감하게 진행하라. 60년생 뒤로 주고 말로 받으니 활동을 많이 하라. 62년생 희망은 꼭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에게 온다. 74년생 흐린 날을 대비해서 우산을 살펴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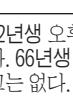
행운의 숫자 : 2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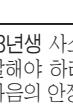
39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거리낌이 없고 마음은 편안하리라. 51년생 멀리서 친구가 오니 즐거우리라. 63년생 버려던 일이 꼭 이루어진다. 75년생 뜻밖의 재난이 올 수 있으니 주변을 살펴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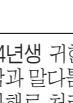
40년생 아가씨 힘이 드니 아내를 살펴보라. 52년생 직장과 자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64년생 자녀는 자신의 미래이며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76년생 좋은 사람과 하루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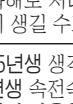
41년생 수하인과의 금전거래는 불량거래가 될 수도 있다. 53년생 양보 받기 보다는 먼저 양보하면 좋은 날이 된다. 65년생 조급만 더 노력하면 주변의 부여물을 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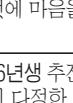
행운의 숫자 : 0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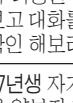
42년생 후에 화재주의를. 54년생 상대가 원하는 무언이든 다 주고는 없다. 78년생 속 타는 일이 생기지만 걱정은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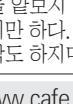
행운의 숫자 : 31.35



43년생 사소한 말이 시비가 될 수도 있다. 55년생 오늘은 문단속을 잘해야 하리라. 67년생 몸은 고달프고 마음은 우울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 79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문제는 없다.



행운의 숫자 : 34.44



44년생 귀한 물건이 안보일 수도 있으니 문단속을 잘해야 하라. 56년생 남과 밀다툼은 사비로 비화되니 절대로 피해야 한다. 68년생 시비는 화해로 처리해야 뒤집이 없다. 80년생 저녁 늦게 외출하면 좋은 일 생길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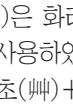
45년생 생각지도 않은 잔치 집에 갈 수도 있다. 기분은 미미하다. 57년생 속чин속결로 추진하면 생긴다. 69년생 외려내려 내적인 것에 마음을 쓰라. 81년생 중심을 잡으면 가수가 됨안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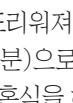
행운의 숫자 : 01.38



46년생 추진하는 일을 꼼꼼히 점검하면 실패는 없다. 58년생 부부간에 디장한 시간을 마련해 보라. 70년생 자녀의 고민을 먼저 생각해보고 대화해 보라. 82년생 주변의 이웃과 친척을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해 보라.



47년생 자기의 지위는 자신이 지키도록 노력하라. 59년생 친한 사람을 알보지 마라 흉한 일이 생긴다. 71년생 춤추고 노래를 하니 즐겁기만 한다. 83년생 오늘은 교통사고를 주의하고 음주운전은 이에 생 각도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 03.12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618>

What are you talking about?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